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서 수 균[†]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 299명에게 자존감 척도, 자기에적 성격검사지, 공격성 질문지, 상대 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에 성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2) 자존감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3) 공격성이 높은 두 집단인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언어적 공격행동에서는 더 높았으나 적대감과 분노-억제에서는 후자 보다 더 낮았다. 한편 분노감과 신체적 공격행동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격성 집단을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격 행동에 대한 연구와 심리치료적 접근을 위해서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자존감, 자기에 성향, 신체적/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 분노 표현 방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 수 균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151-742) / TEL : 02-880-5498 / FAX : 02-871-6033 / E-mail : ssg2@snu.ac.kr

최근 들어 일군의 학자들로부터 분노장애라는 진단명이 새롭게 제안될 정도로 분노감과 공격행동이 정신병리의 주요한 증상으로 주목받고 있다(Eckhardt & Deffenbacher, 1995).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등에서는 분노감과 공격행동이 주요 문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는 관련된 특징으로 모욕감, 격노, 보복행동 등을 기술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또한 분노와 적대감이 관상 동맥질환과 본태성 고혈압의 유발, 악화 및 재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교현, 전검구, 1997; 김교현 2000). 이처럼 심리적 적응과 신체 건강과 관련해서 분노감, 적대감 및 공격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증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Deffenbacher, 1999; Leifer, 1999; Mayne & Ambrose, 1999; Ornstein, 1999; Robins & Novaco, 1999).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행동(aggression) 등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AHA! 증후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개념들로 이해되어 왔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 Martin과 Watson 및 Wan(2000)은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을 특질분노를 구성하는 세 요인으로 보고 각각 특질분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은 개념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며 현상학적으로도 독립된 측면을 갖고 있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애매하게 정의되고 비일관되게 개념화되어 사

용되어 왔다. 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선행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으며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 간의 명확한 개념적 구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김교현, 전검구, 1997; 김교현, 2000; Spielberger et al, 1985).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분노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된 점은 분노감이 생리적 흥분상태를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라는 점이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및 Crane (1983)등은 분노감이 가벼운 수준인 성가심이나 짜증으로부터 격노나 격분과 강한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Buss와 Perry(1992)는 분노감을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감을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적대감에 대한 정의는 분노감에 비해서 학자들 사이에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Spielberger et al, 1993).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격행동은 수단적(instrumental) 공격행동으로 분류되며 순전히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파괴적인 행동은 정서적(혹은 적대적) 공격행동으로 분류된다(Berkowitz, 1993).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정서적 공격행동이며 이를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Martin 등(2000)은 특질분노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는 Spielberger가 제안한 특질분노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높다. 본 연구자는 Berkowitz (1993)가 제안하고 있는 공격성(aggresiveness)이라는 용어를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Berkowitz(1993)는 다양한 다른 상황들에서 공격적이 되게 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준비성을 공격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고 적대감이 높으며 공격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성에 대한 심리치료적인 관심은 이와 관련된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인데 이들과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공격성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특히 공격성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두가지 성격적 특징은 공격적인 사람들을 질적으로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치료적 전략이나 목표도 달라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이 고유하게 공격성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서 이 두가지 성격적 특징이 현저한 집단이 공격성의 경험 및 표현 양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겠다. 성격적 특징에 따라서 공격성의 경험 및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면, 이는 공격성 집단을 상이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격성 집단의 성격에 따라 치료 전략이나 목표를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Anderson, 1994; Jankowski, 1991; Kirschner, 1992; Lochman & Lampron, 1986; Long, 1990; Rosenbaum & DeCharms, 1960; Schneider & Leitenberg, 1989; Toch, 1969; Oates & Forrest,

1985; Wiehe, 1991), 정작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지 않다. 자존감과 공격행동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가 하면(Bushman & 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Salmivalli, 1999; Rigby & Slee, 1993),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Baumeister, Smart, Boden, 1996; Licht, 1966; Worchel, 1958;).

자존감과 공격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은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일으킨다는 주장으로, 이는 분명한 경험적인 근거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Baumeister et al., 1996). 심지어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낮은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이끌기도 하였다(Baumeister et al., 1996). 아동이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이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Lochman & Lampron, 1986; Schneider & Leitenberg, 1989).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유능감을 측정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의 자존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almivalli, 2001). Anderson(1994)과 Jankowski(1991)는 갱들의 폭력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낮은 자존감을 들었다. Toch(1993)는 낮은 자존감과 폭력성 사이에는 상보적인 관계가 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추될 위기에 처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의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축적된 연구결과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자기 고양의 동기는 오히려 자

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Baumeister, Tice, & Hutton, 1989; Tice, 1991, 1993).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향상시킬 기회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종종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회피하였다(De La Ronde & Swann, 1993; Swann, Griffin, Predmore, & Gains, 1987).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며 (Baumeister, Tice, & Hutton, 1989), 자신을 치켜올려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wann, 1987). 또 이들은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는 동기도 약하다고 한다(Sedikides, 1993).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피하는 경향이 있다(Baumeister et al., 1996).

최근 들어서 자존감과 공격행동간에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Salmivalli(2001), Rigby와 Slee(1993)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실시하고 친구에 대한 공격행동(bullying)을 평가하여 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존감과 공격행동간의 상관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친사회적 행동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와 Rosenberg 자존감 척도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자존감과 관련이 없었으며 적대감은 자존감과 중등도의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분노감은 경등도의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Buss & Perry, 1991).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사용한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실험실 연구에서도 자존감 수준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Baumeister 등(1996)도 낮은 자존감이 폭력행동을 일으킨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공격행동과 자존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일부 연구들을 근거로, 어느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도 공격적이 될 수 있으며, 공격대상을 정할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보복의 위험성이 적은 약하고 무기력한 상대(예, 여자, 아동)를 찾는 경향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Baumeister et al., 1996).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분노감과 적대감을 보이지만 공격행동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Buss와 Perry, 1991, 1992; Ehrlich, 1973).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접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분됨을 주목하였다.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집단이 있다(Baumeister, 1993).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전 연구들에서 자존감과 공격행동간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겼던데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자존감은 흔히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적인 견해를 일컫는 것으로, 자존감이 건강하게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볼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질적으로 가치있다고 여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다(Buss, 1995; Salmivalli, 2001). 즉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균형있게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존감 척도들은 대부분 자기보고형 검사들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기수용성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자존감을

평가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aumeister et al., 1989; Salmivalli, 2001).

자존감 척도로 측정했을 때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타인에 의해서 도전 받거나 부정될 때, 그 대상을 향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기저에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위협받거나 자존감이 실추되는 경험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어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Baumeister, 1997). 이와 같이 겉으로 보고하는 자기평가적인 자존감은 높지만 기저의 자존감은 취약해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부당하게 지각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을 일군의 학자들은 방어적인 자존감(defensive self-esteem) 집단이라고 일컫고 있다(Harder, 1984).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은 높은 자기애적 성향 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과장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감을 느끼며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낸다(Salmivalli, 2001). 이들 역시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나 부정적인 평가에는 매우 취약해서, 자신의 열등함이나 약함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서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genuine high self-esteem)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접하더라도 심리적인 동요를 크게 보이지 않으며 위협감을 덜 느낀다(Salmivalli, 2001). 이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기보

다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흔히 보인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갖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Papps & O'Carroll, 1998).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과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고식의 자존감 척도에서는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존감 척도를 이용해서 자존감과 공격행동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애적인 성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애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Hart & Joubert., 1996, Cann & Biaggio, 1989; Raskin, Novacek, Hogan, 1991; Wink, 1991).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였고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다(Cann & Biaggio, 1989).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자존감은 공격행동과 관련이 없었지만 자기애적 성향은 공격행동을 예언해 줌을 보여주었다. Papps와 O'Carroll(1998)의 연구에서 자존감과 자기애적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이 분노감 경험과 표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서 자존감은 높고 자기애적 성향이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애 성향이 높거나 낮은 두 집단은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 연구는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과 진정으로 높은 자존감 집단을 직접 비교한 연구로, 예언대로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이 분노감 경험과 표현에서 가장 강했고 진정으로 높은 자존감 집단은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과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전 연구와 비교해서 두 가지 점을 보완하

였다. 첫째는 자기에 성향을 통제하고자 자존감과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격행동을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누어서 자존 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는 것이다. Buss와 Perry(1992)는 공격행동이 두요인, 즉 신체적 행동 과 언어적 행동으로 나누어짐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를 개발하였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공격행 동이 신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으로 구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격행동을 신체적 행 동과 언어적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 당하다. 자존감이 높더라도 자기에 성향의 정도 에 따라 방어적 자존감 집단과 진정으로 높은 자 존감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서 공격성의 양상도 반대가 된다. 이점 을 고려해 본다면 자기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보았을 경우, 둘 간의 관련성이 실제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앞서 언급한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둘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 온 연구들이 지배적이었는데(Bushman & 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Rigby & Slee, 1993; Salmivalli, 2001), 이는 자기에 성향을 통제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상관이 축소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자기에 성향을 통제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련성 을 알아보 고자 한다.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이라는 네 요인 으로 나뉜다. 공격성 질문지(서수균, 권석만, 2002) 의 네가지 하위척도들은 각각 이를 평가하기 위 해서 사용되었다. 분노경험과 표현 양상을 평가

하기 위해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중 에서 특질분노, 분노-억제, 표출, 통제 하위척도 를 사용하였다. 분노-억제는 분노를 경험하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는 빈도로, 분노-통제는 분노 경험을 인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정시켜 분노 표출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분 노-표출은 경험하는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로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방식으로 신 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교헌, 2000; 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Rosenberg 자존감 척도(이훈진, 원호택, 1995)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 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존감의 중요한 요인인 자기수용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 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타인의 사소 한 비난이나 평가적인 언급에 대해서도 쉽게 우 울감, 의욕저하, 무력감 등을 경험한다(Frey & Carlock, 1989). 이들은 성공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 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타 인의 부당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맞서 대응하지 못한다(Tennen & Herzberger, 1987). 자존감에 쉽게 상처받고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경험하 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못하 며, 상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 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hrlich, 1973; Licht, 1966). 보복받을 가능성이 적은 약한 대상 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택하거나 아니면 분노경험 과 무관한 상황에서 과장되게 분노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Baumeister et al., 1996).

이에 비해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자존감에 위협을 쉽게 받지 않으며 따라서 공격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Kernis, Grannemann, Barclay, 1989).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가능하다.

첫째, 자기에 성향을 통제 한 뒤에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상관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과 적대감을 많이 경험하며, 신체적 공격행동과 같은 과격한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셋째, 자존감이 높을수록, 잘 통제된 분노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넷째,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억제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기에적 성격 검사지(한수정, 1999)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지는 Raskin과 Hall(1979)이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성향 측정도구이다.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평가에 못미치게 되면, 이를 부당하게 지각하고 평가자에게 분노감을 흔히 느끼며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존감에 위협을 끼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가능하다.

첫째,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을 더 자주 경험하며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많

이 보일 것이다.

둘째,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잘 통제된 분노 반응을 덜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이 높은 두 집단인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을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이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며, 분노표현 양상에서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묶음을 실시하였으며, 무응답자는 8명으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291명이었다. 남자가 94명(31%), 여자가 197명(69%)이었고, 연령은 18세에서 33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표준편차=1.98).

도구

Rosenberg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자기에적 성격검사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이 DSM- 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번안한 4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자기애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분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한수정, 1999). 8주간격 동형 검사 신뢰도는 .72로 보고되었다(Raskin & Hall, 1981).

공격성 질문지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 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AQ-K는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내적 합치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총점 = .86)(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1; 언어적 공격행동, .83; 분노감, .60; 적대감, .75(총점 = .81).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 K):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이 개발한 상

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검구, 한덕웅, 이창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특질-분노(10문항)와 분노의 세 가지 표현적 측면인 분노-억제(Anger-In)(8문항), 분노-표출(Anger-Out)(8문항), 분노-통제(Anger Control)(8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된다. 특질 분노와 분노 표현 척도에서는 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 등으로 평정된다. 내적합치도는 특질 분노는 .82였으며(전검구 등, 1997),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질 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검구, 한덕웅, 이창호, 1998).

결 과

자존감과 공격성에 대한 상관분석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에서 자기애 성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애적 성격검사지 점수를 통제한 뒤에 공격성과 자존감간의 부분상관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애적 성격검사지 점수를 통제한 뒤에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질적인 분노경험 정도를 반영하는 AQ-K의 분노감, STAXI K의 특질-분노에서 일관되게 자존감과 중등도의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AQ-K의 적대감도 자존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r(298)=-.23, p<.01$; $r(298)=-.33, p<.01$; $r(298)=-.37, p<.01$. 이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며 적대감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표 1. 척도들간의 상관 및 부분상관

척 도	평균(표준편차)	SES		NPI	
		상관	부분상관 (NPI 통제)	상관	부분상관 (SES 통제)

AQ-K					
신체적 공격행동	19.81(5.13)	-.09	-.14*	.11	.15*
언어적 공격행동	12.68(3.14)	.03	-.10	.30**	.30**
적대감	18.60(4.93)	-.37**	-.37**	-.08	.08
분노감	13.75(3.33)	-.18*	-.23**	.09	.17**
STAXI-K					
특질분노	20.79(4.74)	-.22**	-.33**	.20**	.32**
분노 표출	14.82(3.39)	-.07	-.20**	.27**	.32**
분노 억제	17.80(4.01)	-.36**	-.31**	-.21**	-.07
분노 통제	20.90(4.35)	.15**	.23**	-.13**	-.21**

주. SES=Self-Esteem Scale,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Q-K=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TAXI-K=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p < .05$, ** $p < .01$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결과들과 일관되고 있다(Buss & Perry, 1991; Ehrlich, 1973).

분노-표출 척도와 자존감이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못미치지만 자존감이 신체적 공격성과도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r(298) = -.20$, $p < .01$; $r(298) = -.14$, $p < .01$. 이에 비해서 언어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특히 신체적인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과격한 행동은 빈번히 보이는 반면에 자기주장적이고 덜 충동적인 언어적인 공격행동에서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공격행동과 자존감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Bushman & 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Rigby & Slee, 1993; Salmivalli, 2001). 본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향을 통제하기 전에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자기애적 성향을 통제한 뒤에는 AQ-K의 신체적 공격성과 STAXI-K의 분노-표출이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존감과 공격행동간에 상관이 없게 나왔던 이전 연구결과들이 자기애 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영향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잘 통제된 분노반응은 증가하는 반면에,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은 줄어들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감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이 시사된다. 이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통제된 반응보다는 분노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충동

적으로 표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이 현저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 통제: $r(298)=.23$, $p<.01$; 분노-표출: $r(298)=-.20$, $p<.01$; 분노-억제: $r(298)=-.31$, $p<.01$.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에 대한 상관분석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상관에서 자존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존감 점수를 통제 한 뒤에 공격성과 자기에 성향간의 부분상관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존감 점수를 통제 한 뒤에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상관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낮아지기도 하였다.

특질적인 분노경험 정도를 반영하는 AQ-K의 분노감, STAXI-K의 특질 분노 하위척도 모두에서 일관되게 자기애적 성향과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보여,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r(298)=.17$, $p<.01$; $r(298)=.32$, $p<.01$. 공격행동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 모두 자기애적 성향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 공격행동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r(298)=.15$, $p<.05$; $r(298)=.30$, $p<.01$. 이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 특히 분노감을 언어적인 수단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기애적 성향이 적대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자기에 성향이 강해지더라도 적대감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음이 시사된다, $r(298)=.08$.

분노표현과 관련해서는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고 분노감을 잘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98)=.32$, $p<.01$; $r(298)=-.21$, $p<.01$. 분노 억

제와 관련해서는 자존감을 통제하기 전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제 한 뒤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298)=-.07$.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의 비교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는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이 약한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이 두 집단, 즉 자존감이 낮은 집단과 자기에 성향이 강한 집단은 공격성 양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단락에서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낮은 자존감 집단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자기애적 성격검사지에서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높은 자기애적 성향 집단은 자존감 척도와 자기애적 성격검사지에서 모두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 두집단이 공격성 양상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질적으로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분노감, 특질-분노에서 일관되게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4)=-.76$, ns ; $t(233)=-.39$, ns . 또한 신체적 공격행동에서도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에 비해서 언어적 공격행동에서는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t(234)=.54$, ns ; $t(234)= 3.58$, $p<.001$. 적대감은 낮은 자존감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207)=-3.69$, $p<.001$.

표 2.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간의 t검증 결과

척도	집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자유도	t
AQ-K					
신체적 공격행동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9.77(4.77)	234	.54
	낮은 자존감	114	19.42(5.16)		
언어적 공격행동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3.32(3.05)	234	3.58***
	낮은 자존감	114	11.93(2.91)		
적대감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7.25(3.89)	207	-3.69***
	낮은 자존감	114	19.48(5.27)		
분노감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3.57(3.37)	234	-.76
	낮은 자존감	114	13.89(3.12)		
STAXI-K					
특질분노	높은 자기에 성향	122	20.57(4.28)	233	-.39
	낮은 자존감	113	20.81(4.76)		
분노-표출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5.19(3.13)	233	2.71**
	낮은 자존감	113	14.07(3.20)		
분노-억제	높은 자기에 성향	122	16.31(3.71)	233	-4.76***
	낮은 자존감	113	18.72(4.04)		
분노-통제	높은 자기에 성향	122	20.84(4.49)	233	-.24
	낮은 자존감	113	20.97(4.10)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 집단이나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분노를 자주 경험하지만,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이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TAXI-K의 분노표현 척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 비해서 분노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표출하며 동시에 분노를 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3)=2.71$, $p < .01$; $t(233)=-4.76$, $p < .001$.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이 분노감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를 겉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위협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과도하게 보이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위협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전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된다(Baumeister et al., 1996; Baumeister, 1996, 1997; Cann & Biaggio, 1989; Harder, 1984; Tennen & Herzberger, 1987). 흥미로운 점은 적대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낮은 자존감 집단이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아, 분노감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이 적대감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분노억제와 적대감의 정적인 관련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논 의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자기에 성향을 통제하지 않고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본 것과 공격행동을 신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으로 세분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향을 통제한 후에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보았으며, 또한 공격행동을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을 통제한 뒤에 자존감과 신체적 공격행동의 부적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격행동과 자존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Rigby & Slee, 1993; Salmivalli, 2001) 이 자기애적 성향을 통제하지 않아 공격행동과 자존감간의 관련성이 축소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언어적 공격행동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초래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이 신체적인 공격행동에 서만 지지되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과 적대감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Buss와 Perry (1991)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분노통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분노억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분노감을 많이 경험하지만 이를 경직되게 억제하는 경향이 강해 오히려 분노감정이 과

격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될 소지가 높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에서 언급한 예언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자존감 수준을 통제한 뒤에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자존감을 통제하지는 않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기에 성향과 분노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Hart & Joubert., 1996, Cann & Biaggio, 1989; Raskin, Novacek, Hogan, 1991; Wink, 1991).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과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적대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에 대한 통제력은 낮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앞에서 언급한 예언들과 일치한다.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분노감을 더 자주 경험하며 이를 공격적으로 더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시사된다. 특히 신체적 공격행동 보다 자기 주장적인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던 Cann과 Biaggio(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에 성향이 강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성 양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다. 자기에 성향이 강한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신체적 공격행동과 분노감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적 공격행동과 적대감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어적 공격행동은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 높았으며, 적대감 수준은 자존

감이 낮은 집단이 높았다. 분노표현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이 분노감을 통제하는 수준은 차이가 없었고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에서 낮은 자존감 집단이 더 높았다. 이는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분노감과 신체적 공격행동에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 모두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격성 양상에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낮은 자존감 집단이 분노감을 억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언어적인 수단으로 분노감을 표현하는데 더 소극적이며, 이에 비해서 높은 자기에적 성향 집단은 분노감을 덜 억제하고 자기주장적인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기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맞서 언어적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에 위협을 받더라도 속으로만 분노감을 느끼지 타인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며 실추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억눌려 있던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상황에 부적절하고 과격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들로부터 더욱 무시받을 소지가 높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적대감이 강하고 억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황에서 회피적이거나 불신감을 갖기가 쉬워 보이는 바, 친밀감 형성과 관련해서도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시사된다. 자기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폭발적이고 부적절한 자신의 분노표현에 대해서 통제력 결함으로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욱 비하적인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며 연구결과도 비일관된 것들이 많아 연구자들의 혼란스러움을 더욱 가중시켜왔는데,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자존감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격행동을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구분해야 하며 자기에 성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노감이나 공격행동이 문제가 되어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자기에 성향과 자존감 수준을 고려해서 치료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은 자기에 성향이 강한 환자들의 경우에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기주장성 훈련은 낮은 자존감 환자들에게 더 필요한 치료적인 개입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동일 시점에서 실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통한 연구라는 제한점으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에적 성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인과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수준에 따라 분노감의 경험과 표현 양상의 분화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서 얻어진 결과가 발달수준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도 그대로 관찰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언어적인

공격행동은 발달 수준의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이 작용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교현, 전겸구 (1997).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79-95
- 김교현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81-192.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0.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 건강*, 3, 18-32.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E. (May 1994). The code of the streets. *Atlantic Monthly*, 273, 81-94.
- Baumeister, R.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201-218).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 (1997). *Evil. Inside Human Cruelty and Violence*. New York: Freeman.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 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pp. 11). McGraw-Hill, Inc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1995). *Personality, Temperament, Social Behaviour, and the Self*.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uss, A., & Perry, M. (1991). Sources of self-esteem in men and women.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Deffenbacher, J. L. (1999).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95-309.
- De La Ronde, C. & Swann, W. B.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positivity and self-verification strivings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147-165). New York: Plenum Press.
-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rer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27-47). Tatlor & Francis.
- Ehrlich, H. J. (1973).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York: Wiley.
- Frey, D., & Carlock, C. J. (1989). *Enhancing Self Esteem*(2nd) (pp.165-176).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Harder, D. (1984). Character style of the defensively high self-esteem m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6-35.
- Hart, P. H.,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Jankowski, M. S. (1991). *Islands in the street: Gangs and american urban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022.
- Kirschner, D. (1992). Understanding adoptees who kill: Dissociation, patricide, and the psychodynam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6, 323-333.
- Leifer, R. (1999). Buddhist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39-351.
- Licht, L. A. (1966). *Direct and displaced physical aggression as a function of level of self-esteem and method of anger arousal*. Unpublished doctoral asser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Lochman, J., & Lampron, L. (1986). Situational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esteem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605-617.
- Long, D. F.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ew York: Free Press.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987.
- Mayne, T. J., & Ambrose, T. K. (1999). Research review on anger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53-363.
- Oates, R. K. & Forrest, D. (1985). Self-esteem and early background of abusive mothers. *Child Abuse and Neglect*, 9, 89-93.
- Ornstein, P. H. (1999).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rage in self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75-282.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Rigby, K., & Slee, P.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33-42.
- Robins, S. & Novaco, R. W. (1999). Systems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25-337
- Rosenbaum, M. E., & DeCharms, R. (1960). Direct and vicarious reduction of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 105-111.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17-338.
- Schneider, M., & Leitenberg, H. (1989). A comparison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s self-esteem, optimism and pessimism, and casu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133-144.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pp.161-190). Hillsdale,NJ :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 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1-26). Tatlor & Francis.
- Swann, W. B.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38-1051.
- Swann, W., Griffin, J. J., Predmore, S. C., & Gains, B. (1987). The cognitive-affective crossfire: when self-consistency confronts self-enhancemen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81-889.
- Tennen, H. J.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 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ice, D. M. (1991). Esteem protection or enhancement? self handicapping motives and attributions differ by trait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and Social Psychology*, 60, 711-725..
- Tice, D. M. (1993). The social motivation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Baumeister, 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 regard*(pp. 55-85). New York: Plenum Press.
- Toch, H. (1969). *Violent men*. Chicago: Aldine.
- Toch, H. (1993). *Violent men: an inquiry into the*

- psychology of viol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9).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ehe, V. R. (1991). *Perilous rivalry: When siblings become abusive*. Lexington, MA: Health/Lexington Books.
- Worchel, P. (1958). Personality factors in the readiness to express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 355-359.
- 원 고 접 수 일 : 2002. 7.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0. 25.
게 재 확 정 일 : 2002. 10. 31.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Su-Gyun Seo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The Self-Esteem Scal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ggression Questionnair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were administered to 299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ults are ; (1) students with low self-esteem showed higher Anger, Hostility,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In than those with high self esteem did, after their narcissism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2) students with high narcissism showed higher Anger, Physical/Verbal Aggression and Anger-Out than those with low narcissism did, after self esteem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and (3) when the two anger-prone groups, i.e., high narcissism group and low self-esteem group were compared, the former group showed higher Verbal Aggression but lower Hostility and Anger-In than the latter group did,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Anger and Physical Agg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gressive or anger-prone people can be divided into high narcissism group and low self-esteem group for psychotherapeutic approach as well as research on aggressiveness.

Keywords : Self-esteem, Narcissism, Physical/Verbal Aggression, Anger, Hostility, Anger expression style